

시 지정 문화재(무형/민속)

1972 년 12 월 21 일 지정

관리자: 후나바시시 어업협동조합

대불 추선공양

이 석조 석가여래좌상은 1746 년에 건립되었습니다. 이후 매년 1 월 28 일(메이지 이후는 2 월 28 일)에 대불 추선공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

‘오사이우라’로 알려진 후나바시의 바다는 에도 시대(1603-1867) 초기부터 중반 가까이에 걸쳐 쇼군 가문에 해산물을 진상하는 좋은 어장이었습니다.

1703 년의 대지진으로 해저지형이 달라지는 바람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고, 그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해산물 헌상은 중지되고 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 이 어장을 둘러싸고 인근(호리에, 네코자네, 야쓰, 사기누마) 어부들과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.

1824 년 후나바시 마을과 네코자네 마을(현재의 우라야스시)과의 어장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, 후나바시가 점유하고 있던 어장에 다른 마을 어부의 배가 침입해 왔습니다. 그 안에 히토쓰바시 가문의 깃발을 세운 배가 있었는데, 타고 있던 사무라이를 후나바시 어부가 때리고 깃발을 빼앗아 버렸습니다. 이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후나바시의 어부 총대 3 명이 투옥되었습니다. 1 명은 감옥에서 죽었고, 1 명은 감옥에서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. 대불 추선공양은 이 때 어장을 지킨 어부 총대와 조석해일(지진해일 또는 폭풍해일)로 인해 사망한 어부와 주민을 함께 공양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.

공양을 올리는 날에는 쌀밥을 지어 대불(석조 석가여래좌상)의 몸 여기저기에 바릅니다. 이것은 감옥에서 음식이 부족했던 어부 총대의 고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불 서쪽에는 어부 총대 2 명의 공양비가 세워져 있습니다.

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